

‘요람에서 무덤까지’ 선운사가 책임진다

승려노후수행마을 1차 낙성

불교계 최초의 전문 승려노후수행시설인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이 차 체험관, 노후수행관 1동, 마을회관 등을 완공하고 현재 3명의 노스님이 거주 중이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노스님들이 안고 있는 소외 질병 빈곤 역할상실 등 현실적 짐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부터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조성·건립해 왔다. 승려노후수행마을이 모두 완공되면 노후수행관 7동, 차 체험관, 보은염 창고, 복지관, 마을회관, 정자 등 총12동의 건물을 갖추게 된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9월 27일 간담회를 열고 승려노후복지마을 1차 낙성을 알렸다. 스님은 “비록 지금까지 완성된 건물은 3동에 불과하지만 완공된 건물들은 지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물들이었다. 때문에 절반 이상은 완성됐다고 봐도 좋다”며 “2014년까지 다른 건물들도 모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운사는 앞으로 황토, 너와, 초가집 등 다양한 형태도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게다가 노스님들의 소일거리를 위해 뒷밭과 마당 등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승려노후수행마을 건립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한 스님들이 법만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을 비롯해 재정, 복지, 간병, 수발문제 등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법만 스님은 앞으로 노후수행마을이 단지 승려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불교 포교와 활성화 위해 외부인들에게도 마을을 개방할 계획이다. 마을회관에는 문화프로그램실,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차 체험관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고장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법만 스님은 재정확보에 관해서는 “승려노후수행마을 운영을 위한 예산을 사중의 부담으로 전가 시키

지 않기 위해 승려 노후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의를 모으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만들봉사’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만들봉사와 함께 보은염 판매,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법만 스님은 “2014년 4월부터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한 스님들에게 별도로 교구에서 수행연금을 보조해 더욱 안정된 노후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 사회복지사업에 아동·청소년 포교로 확대하고자 교정군에 ‘불교회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 문화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눈 감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노후수행마을 입주한 前 선운사 주지 재곤 스님

승려노후수행마을의 노후수행관이 1차적으로 완공돼, 前 강천사 주지였던 재곤 스님, 前 선운사 재무국장인 종안 님, 前 선운사 주지이자 관음사 주지인 재곤 스님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재곤 스님은 개인사찰인 군산 ‘관음사’를 선운사를 공찰로 전환 후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했다. 관음사는 시가로 약 20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사찰로 수행마을 입주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재곤 스님은 “염주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 되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내 것이 아니다”라며 “산전초목은 감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때문에 그리 대단하다고 여길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법만 스님처럼 지역 내 포교활성화를 위한 일력이 있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라며 “법만 스님



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에 감동받아 그 보답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곤 스님은 “막상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하고 보니, 지난 날

안일했던 나의 과거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더 수행에 정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라며 “지난 시간 동안 하지 못한 수행과 참회를 남은 시간 동안 노후수행마을에서 지내면서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특별기고

믿음 갖고 쉬지 말고 나를 단련하자

금년도 예년처럼 불교계에 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만큼 우리 불교계가 안정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자기를 성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려는 마음이 정착되어간다고 생각된다. 부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인간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더욱 불교 본질의 중심 쪽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변화’란 ‘살아있음’의 징표이다. 죽은 존재는 변화가 없다. 그러고 보면 결국 변화는 삶의 한 부분이자 또 중요한 속성이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파괴와 변화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죽은 존재는 변화가 없다

묵은 발 돌보는 노력 있어야

한국 불교의 오랜 수행 전통 중의 하나는 참선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다.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불교계에 법상, 화엄, 선, 천태 등 다양한 종파가 있었지만, 고려 말을 거치면서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선종의 종문 계보만이 이어진다. 현재는 선종의 자손들만이 남아 있다.

요즘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지금도 어른들이 계시는 문중들은 비구계를 받은 뒤, 나이를 먹고 일정한 수행을 가진 후에는, ‘입실’ ‘건당’을 한다. 이때에 스승으로부터 ‘계문’과 ‘조과’를 받는다. ‘조과’를 보면 제1세 가섭존자를 시작으로 자신이 석가세존의 몇 세손이고, 또 태고보우(1301~1382년) 국사의 몇 세손인지, 그 계대의 소목이 정연하게 적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이나 어디 다른 외국에서 법맥을 전수 받은 경우가 아니면, 현재 한국의 스님은 계보상 모두 선종의 자손이다. 그 분이 살아생전 경학을 연찬하셨던, 또는 염불 작법에 전념하셨던, 양공의 도련수가 되셨던, 또 참선을 하셨던, 그 전공에는 관계없이, 사후에 그 분을 칭송하여 부를 때는 모두 ‘아무개 아무개 선사’라 하고, 또 비문에도 그렇게 적어 드린다. 즉, 현재 한국 불교의 전통은 선종이고, 수행법으로는 간화선이 전통이다. 그것도 700 여년을 내려

오는, 보조지눌(1158~1210년) 스님 때부터 치면 800년이 넘는, 긴 전통이다.

긴 전통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역사적 굴곡이 있다. 조선시대 500여 년 간은 철저하게 ‘탄압’했고, 일제강점기 30 여 년 간은 ‘왜색화’ 공작이 있었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긴 ‘분규’를 조장했고, 전두환 정권하에서는 ‘해탈’을 저질렀다. 그것도 정치의 핵심 권력에서 말이다. 우리가 못나서 그랬다고 뺏아온 반성을 하지만, 역사란 사회적 정치적 등등의 여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잘 해야 한다.

6·25 전쟁이 시작되던 시절, 퇴옹성철(1912~1993년) 선사에 의해서 시작된 불암사 결사를 계기로 선원(禪院)의 정신이 우뚝 섰고, 세월 속에서 차츰 총림이 정비되고, 돈오돈수의 간화선법이 선문의 정통으로 제 자리를 잡고, 또 최근에는 ‘조계종선원청구’가 만들어져서 말하면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다.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불교계에 법상, 화엄, 선, 천태 등 다양한 종파가 있었지만, 고려 말을 거치면서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선종의 종문 계보만이 이어진다. 현재는 선종의 자손들만이 남아 있다.

필자는 한문으로 된 중국의 선어록을 많이 읽는 편이다. 거의 매일 본다. 모르겠는 부분이 태반이지만, 또 보고 뵈다가 또 보고 그러다보면, 저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더러는 조금 짐작이 가기도 한다. 내가 모른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신심(信心)을 가지고, 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디 불경을 다 알아서 읽는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여래의 진실한 뜻을 아는 날까지 쉬지 말고 노력할 뿐이다.



신규탁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구원 만평



나라는 달라도 차사랑은 같아요

열렸다. 천태종(원장대행 무원)은 9월 25일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국제차문화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총무부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중국 북경 영광사 방장 상장 스님, 강릉시 문화체육관광부 주무실장박물관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공덕 헤아려 달라

운산 스님 상좌들 호소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별빈 징계를 두고 前 총무부장 법현 스님 등 상좌들이 “총무원장 책임자에게 최고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종단 모두의 일”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좌스님들은 “운산화상 문도회원” 이름으로 9월 28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스님들은 “송구스럽지만 종단과 종단과 개인을 위해 그리고 종단 안팎의 따가운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간절히 정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은사 운산 스님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개진해 달라”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참회하고, 호법원 심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曹溪宗 元老 道天堂 道川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道天堂 道川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55(2011)年 9月 28日(陰 9月 2日)

午後 1時 10分 忠南 錦山 大苞山 太古寺에서 法臘 83年, 歲壽 102歲로 圓寂하셨습니다.

門徒代表 明煥 合掌

- 焚香所 : 全南 求禮 華嚴寺
- 永訣日時 : 佛紀 2555(2011)年 10月 2日(陰 9月 6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全南 求禮 華嚴寺
- 茶毘場 : 全南 求禮 華嚴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全南 求禮 華嚴寺 ☎ 061)783-7600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道天堂 道川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 조화는 정중히 사절합니다.